

생육 부진에 '슈파' 된 대파

12월 대파 도매가격 1kg당 2700원...전년비 48.5% 급증 기상악화·재배면적 줄며 출하량 20.8% 감소...전남 15.9% ↓

대표 양념채소인 대파의 가격이 심상치 않다. 대파는 사료비와 인건비 등 농가경영비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올해 이상기후로 대파 생장이 좋지 않아 재배면적이 줄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 '2023년 12월호 양념채소'에 따르면 12월 대파 도매가격은 상품 1kg당 2700원으로 지난해 동기(1818원) 대비 4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가격인 1602원보다 68.5%나 비싼 가격으로, 지난 7월 대파(1kg) 도매가격이 1873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대파 도매가격은 평년 9월 기준 1kg당 2032원 수준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김장철을 앞둔 지난달 3000원 선을 돌파하며, 1kg 당 도매가가 3343원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값을 경신했다. 작년 11월(1809원)과 최근 5년 간 11월 평균가격인 1724원이었던걸 감안하면, 각각 84.8%, 93.9% 상승했다.

대파 도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대파 출하면적 감소와 기상악화로 인한 겨울 대파 출하량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REI는 12월 겨울 대파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대파 출하면적이 지난해와 견줘 1.6%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를 대파 생육기에 늦은 강우와 급격한 기온하락 등 기상악화로 대파 단수가 지난해보다 19.5%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파 출하지 별 출하량 증감률을 보면 전북지역 대파 출하량이 35.3% 감소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경기(-32.5%), 영남(-31.1%), 충청(-22.0%), 전남(-15.9%)이 뒤를 이었다.

또 진도 등 전국 대파 주요 산지인 전남에서 겨울 대파 생산이 부진해, 올해 대파 출하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파 값이 치솟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KREI 농업관측센터가 대파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 대파 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신안·진도·영광 등에서 겨울 대파 생육 상황을 부

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농가의 절반 가량이 지난해와 겨울 대파 생육 상황이 비슷하다고 답했지만, 대파 생육 상황에 '좋음'을 선택한 농가는 전체의 20%에 불과했고, '나쁨'을 선택한 농가는 32.4%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 대파 최대 생산지로 꼽히는 신안군의 경우 농가의 35.3%가 대파 생육 상황 '나쁨'을 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외 전남지역 대파 산지로 꼽히는 영광(33.3%), 진도(27.8%)도 대파 생육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KREI는 12월 중순 이후에는 겨울 대파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출하량이 증가, 대파 값이 상승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네티리와 양송이 등 버섯류 가격도 가을철 병충해, 인건비 부담 등의 요인으로 출하량이 감소,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가락시장 상품 기준 12월 네티리버섯(대작업·꽃 네티리·2kg) 도매가격은 7000~7700원으로 지난해 동기(6628원) 대비 10.9%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양송이 버섯은 12월 가락시장 상품 2kg 기준 도매가 2만4000원~2만5000원으로 지난해(2만2048원)보다 11.1% 비쌀 것으로 전망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최근 광주시 광산구 송치동에서 열린 본량농협 경로당 밀반찬 지원사업에 참여한 본량농협 임직원들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치킨은 못 참지”...올해 닭·오리 소비 늘었다

1인당 닭 16.51kg·오리 3.65kg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먹는 닭고기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3~25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20~69세)을 대상으로 한 '가금류 소비 조사' 결과, 올해 닭고기 소비량은 1인당 16.51kg으로 앞선 2020년 조사 때보다 0.74kg 늘어났다.

오리고기 소비량은 3.65kg으로 0.72kg 증가했다. 닭고기의 가장 내 배달 소비량은 2020년 3.29kg

에서 올해 3.10kg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가장 내 간편식 소비량은 2020년 1.91kg에서 올해 2.19kg으로 늘어났다.

최근 밀키트 등 조리 편의성이 높은 가정 간편식이 다양하게 출시돼 배달과 외식 수요를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42.6%로, 2020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가정 외에서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성인도 2020년보다 2.7%포인트 늘어난 41.2%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본량농협·농가주부모임 경로당 밀반찬 나눔 실천

동치미·호박죽 등 34곳 전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최근 본량농협(조합장 정상윤)과 농가주부모임(회장 강로마) 부녀회 회원들이 관내 경로당에 밀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3일 밝혔다.

나눔행사에서 정상윤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여성조직 회원 40명은 동치미와 물김치, 콩나물 등 밀반찬과 호박죽을 직접 만들어 관내 34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논에 쌀 농사만 지을 건가요?

콩도 심고 조사료도 심고...농사도 스마트하게

농사의 기본은 쌀농사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농업 지형의 변화로 쌀 농사가 저물어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었고, 그중 곡물 쌀이 중심에 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 농경지 153만ha 중 논이 77만6000ha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보다 약 19만ha 감소했지만, 벼가 72만ha 재배될 정도로 쌀 중심 농업을 해왔다.

이제 쌀 소비 감소가 이어지고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이 되레 줄어가는 상황에서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택한 전략 작물직불제가 그것이다. 겨울철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가루 쌀이나 논콩을 이어 짓는 이모작을 하면 직불금(250만원/ha)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 파생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은 쌀가공식품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27년까지 가루미 20만t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가루미 품종인 '바로미2' 재배면적을 2023년 2000ha 수준에서 2026년 4만2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루미 연구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가공용 쌀에 적합한 벼 품종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가공용 벼는 떡과 즉석밥, 장류, 과자, 주정 등 밥쌀 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벼를 말하는데,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찰벼와 중간찰벼, 유색미, 기능성 벼 등 가공용 벼를 육성해 보급해 왔으며

2022년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ha 중 약 11% 수준인 7만6000ha에서 재배되고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냉해,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작물 생산과 관련 대비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농진청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품종 즉 '그린라이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라이스도 개발하고 있는 '밀양 360호'는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16% 줄일 수 있고, 비료 투입량을 절반으로 줄여 메탄 발생량을 최대 23.9%까지 줄일 수 있다. 메탄가스를 줄이는 '중간물떼기 기술'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감축 수단으로 등록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고온에서도 등숙이 잘되는 품종, 냉해에 잘 견디는 품종, 그리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바이러스병, 멸구 등 병해충에 강한 품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어쨌든 논에서 쌀 농사만 하는 시대는 이미 갔고, 환경친화적인 벼 품종을 심거나, 조사료나 논콩을 키우는 보다 스마트한 농업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bigkim@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개선을 위한 국가공인 농업전문가로서 농산물의 등급판정과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그리고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와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김한중(사진) 장성군수가 '2023년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본상을 수상했다.

3일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귀농정책을 통해 농업인구 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한중 군수는 올해 귀농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귀농활성화와 농촌지역 인구유입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본상에 선정됐다. 또 장성군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귀농인 영농 기반·정책지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귀농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디지털타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을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는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도시민을 겨냥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